



초등 예비교사 대상 해외 한국어교육 실습 프로그램 연구* -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미혜¹, 오지혜²

《〈 요약 〉》

이 연구는, C교육대학교가 2023년 하계 방학 기간에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서 실시한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초등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서 해외 한국어교육 실습 프로그램이 지니는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사례에서 초등 예비교사들은 타슈켄트에 있는 초·중등 통합학교 두 곳에서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한국어 및 타 교과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C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20명과 만 6세에서 15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현지 학생 120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모든 수업에는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현지의 대학생 6명이 보조강사로 참여하여 예비교사와 현지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번 한국어교육 실습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전교육을 통해 예비교사들은 한국어 수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현지 실습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비교사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실습 과정에서 내용 지식과 교수 및 지도, 태도 등 모든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어교육 실습이 끝난 후에 예비교사들은 교육적 효능감이 향상되었다고 답했으며, 한국어 교수 전문성, 학제 간 융합교육 역량, 교사로서 자기 효능감, 글로벌 역량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주제어 : 초등 예비교사, 한국어교육, 해외 한국어교육 실습, 교사 효능감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1.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antikka@cje.ac.kr (주저자)
2. 세명대학교 교수, irene927@hanmail.net (교신저자)

”

. ž
 %L " &S% *%ž, -ž (- &S&
) ž% ž-, &S& %%ž/ž, %S
)) ž, S " &S% S", *1
 &S& "(+1 fl ž &S& L"
 ("(1 " ž
 %SS " S1
 &S% , &S&& +% & "
 - S1 % +Sr - S1 * ž) Sr +S1
 - ž' Sr) S1)) fl ž &S& &L"
 "
 &S%& fl G@L ž
 "
 ž
 fl ž &S&L"
 ž
 "
 "
 ž
 "
 "

1) 교육부는 올해부터 ‘다문화’라는 용어가 해당 학생들에게 부정적 낙인효과를 주고 있고 단일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다문화 학생’이라는 명칭을 ‘이주 배경 학생’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다양한 언어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교육부, 2017)을 가리킬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 배경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2) 현시점에서는 경인교육대학교의 국어교육과 심화 전공 교육과정에 한국어교육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선택 과목이 있고 일부 교육대학원에 한국어교육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정도가 전부이다. 물론 국어 관련 교양 과목이나 교과교육 과목, 심화 전공으로 국어교육과를 선택한 학생들을 위해 개설되는 전공 과목에서 교수자의 재량에 따라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일부 다루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fBglcb/ 'K YWz%, 'L fBUxI fUz% ++L

fHYUW]b['9ZfVMMhL fDfYfcbU'HYUW]b['9ZfVMMhL

" fti hWa Y Yl dYMUhcbL

ž

" fZfVMMhY dYMUhcbL

fl ž &&% '%) (L"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 ž ž fRS&L

ž

" % \$

ž

ž

"

fl ž &&% lž

fl ž ž ž &&% L ž

ž fl ž &&& L

fD7? ffl ž &&& L

"

ž ž

"

&"

#8

7

'&S ž

'%*

" ž fHUG_Ybh gUY
dYXU[c][W'i b]j YfglmbLā YXUZM'B]rLā ž

"&S&
'% %), ž
" &S& +

& , " &
(" *

% %&S ž
7 &S *

" 7 'O %2 "

bHfBUcbU'I b]j Yfglmb' HUG_YbH: % " fP]a nc'

#0

남	여	계	10대	20대	30대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3명	17명	20명	1명	19명	0명	20명	2명	5명	13명	0명	20명

) (ž ž ž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ž . . . " . . . O &2
 . . . " . . .
 ž . . . (. . .
 "% . . . ž . . .
 & . . . "

\$O

		#	\$	%	&
# / #* fi	09:00~10:40	3반	4반	1반	2반
		미술 1차시	미술 1차시	미술 1차시	미술 1차시
		(5'~10' 쉬는 시간) 자유로운 대화, 보충 등			
	10:40~11:00	미술 2차시	미술 2차시	미술 2차시	미술 2차시
	11:00~12:00	쉬는 시간 및 교실 이동			
\$ / %# fi	09:00~10:00	3반			
		한국어 1차시	한국어 2차시	한국어 3차시	한국어 4차시
	10:00~10:20	쉬는 시간 및 교실 이동			
	10:20~12:00	3반	4반	1반	2반
		미술 1차시	미술 1차시	미술 1차시	미술 1차시
(5'~10' 쉬는 시간) 자유로운 대화, 보충 등					
미술 2차시	미술 2차시	미술 2차시	미술 2차시	미술 2차시	

. . . 7 . . .
 . . . " . . . ž
 . . . ž . . .
 . . . " . . .

단체교육	5. 1. ~ 6. 31.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및 현지 정보 안내 등 - 교육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안내 △ 한국어 수업의 이해 세미나 실시 - 한국어 및 기초 과목 수업 설계 컨설팅 △ 한국어 수업 설계 워크숍 실시 - 팀별 수업 설계안 발표 및 지도 방안 공유 - 한국어 및 기초 과목 수업 지도안 피드백 등
팀별 모임	5. 1. ~ 7. 31. (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구성 및 교재, 교구 선정 △ 주제 설정 및 수업 지도안 작성 △ 수업 지도안 수정 및 학습 자료 활용 연습 △ 수업 재료 및 교구 목록 제출 △ 수업 시연 및 피드백 △ 봉사활동 준비물 최종 점검 - 교재, 교구, 운영 물품 등

3) 한국어 수업 세미나는 크게 세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어교육 실습에서 사용할 ‘학생 맞춤형 수준
 평정 그림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 취지와 원리를 소개하고, 초등학교 대상 한국어 수업에서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대상 한국어 학습과 이종언어 학습의 접근에서 수업
 단계별 한국어 교수 방법과 수업 운영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집단 토의가 이루어졌다.

" "

. "

. (. &

ž(. %

. "

. 6

. "L: (. %

. "

. 7 fl

L "

. ž

. ž ž fl ž ž &&& L'

. ž ž ž ž ž

. "

. "

. "

. "

. ž7

. "

. "

4) 기획 단계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4~6학년 학생들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출국 전까지는 이를 기준으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정해 나갔다. 그러나 제31학교와 제158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참여 학생들의 나이와 한국어 수준의 편차가 더 커져서 예비교사들이 현지에서 한국어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현지 학생들 중에는 한국어 학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도 있었고 2년 이상 한국어를 학습한 학생들도 있었다. 게다가 학급마다 편차가 일정치 않아 대처하기 쉽지 않았다. 현지 학교가 학생 모집과 학급 편성을 담당해 한국어 수준에 따라 학급을 편성할 수 없었던 점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

WXbLE

&S

0 (2

&O

기본 정보	배경 변인	선택형	3	공통
	한국어교육 관련 강의 수강 경험	선택형	1	사전
		자유응답형	1	
	한국어교육 관련 활동 참여 경험	선택형	2	사전
	프로그램 참여 동기	자유응답형	1	공통
	사전교육 평가	선택형	2	사후
자유응답형		1		

한국어교육 관련 인식 및 효능감	한국어교육 및 교사교육에 대한 인식	척도형	4	공통
	한국어 및 한국어 교육에 대한 효능감	척도형	14	공통
프로그램 만족도 및 효과	한국어 실습 및 수업 자료에 대한 만족도	척도형	9	사후
		자유응답형	3	
	한국어 실습 및 수업 효과	척도형	1	사후
		자유응답형	1	

쯔
 & %
 % " &
 "
 "0)2 '0 *2
 "
 "

		fi
1) 나는 한국어교육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45	3.85
2) 이중언어 학습자의 한국어교육은 한국어 강사가 전담해야 한다.	3.3	3.5
3) 모든 초등 교사는 학급 내 이중언어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3.45	3.75
4) 초등 예비교사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강좌가 필요하다.	3.7	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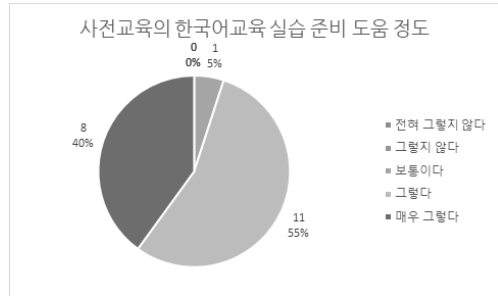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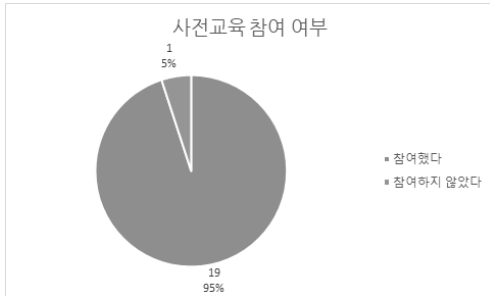
(O

fi

1) 나는 한국어 발음을 잘 알고 있으며 구사할 수 있다.	4	4.35
2) 나는 한국어 표현을 잘 알고 있으며 구사할 수 있다.	4.25	4.45
3) 나는 한국어 문법을 잘 알고 있으며 학습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	3.8	4.15
4) 나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에서 보이는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도울 수 있다.	3.6	4.25
5) 나는 한국 및 우즈베키스탄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5	3.8
6) 나는 한국어 수업의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3.3	4.2
7) 나는 한국어 수업의 교육 자료에 대해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다.	3.35	4.35
8) 나는 한국어 지식에 대해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설명할 수 있다.	3.4	4.5
9) 나는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을 한국어 수업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3.4	4.1
10) 나는 가르친 내용을 학생들이 잘 이해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3.85	4.5
11) 나는 한국어 학습에 별로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3.8	4.1
12) 나는 학습자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다.	3.4	4.15
13) 나는 한국어 수업에서 다양한 방법의 교수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3.5	4.25
14) 나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수업을 조정할 수 있다.	3.65	4.65

&")t

5) 이번 교육봉사 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함께 다른 교과 즉, 수학, 과학, 미술 등 타 교과 수업을 내용 중심 한국어 교수 지도로 진행하였다. 타 교과 수업의 경우, '한국어 교수'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 시간에 '한국어'로 이루어진 교사의 말과 메타언어, 그리고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 양상과 특성을 중심으로 실습 내용을 살펴보았음을 밝힌다.



M #O

.....
 ž ž
 "
 "

“교육 봉사에 앞서 사전교육을 두 번 진행했었는데,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겪는 어려움, 신경 써야 할 부분들,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교재의 활용 방법들과 간단한 예시들은 더욱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ž ž "

“한국어교육의 단계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참가자 대다수가 한국어교육을 해본 적이 없어서 봉사 프로그램 구성이 막막했는데, 사전교육 덕분에 어느 정도 틀을 잡을 수 있었다.”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는데, 한국어 수업 사전교육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그림책 교육 자료를 제공해주셔서 수업을 구성하는 것에 큰 보탬이 되었다.”

..... ž ž

“ 사 전 교 육 때 는 한 국 어 교 육 의 특 수 성 을 알 수 있 었 고, 한 국 어 교 육 이 익 숙 하 지 않 은 저 에 게 큰 도 움 이 되 었 습 니 다. ”

“사전교육 때는 한국어교육의 특수성을 알 수 있었고, 한국어교육이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준비과정 또한 팀원분들과 함께 준비하며 수업에 필요한 것들과 중요한 요소들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이후에 또 다른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 학습목표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육 실습을 떠나기 전 2차례의 사전교육을 통해 미리 한국어교육 연수를 받고, 서로의 수업 계획표를 공유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처음이라 막막했는데, 강사님의 연수를 통해 4차시 분량의 수업의 기초적인 틀을 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수업 계획을 공유하고,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수업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 들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 사 전 교 육 때 는 한 국 어 교 육 의 특 수 성 을 알 수 있 었 고, 한 국 어 교 육 이 익 숙 하 지 않 은 저 에 게 큰 도 움 이 되 었 습 니 다. ”

“(전략) 현지 상황(학급 당 학생 수, 학생의 한국어 수준, 통역 보조 학생 여부)을 파악하지 못해 수업 준비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처음 하기 때문에 지침을 삼을 수 있는 교본이나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으면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한국어 수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기에 자료 준비에도 부족함이 있어 현지에서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어 낱말 카드를 만들 때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이 낮음을 고려해 해당 나라의 발음기호를 함께 써 주면 수업 속도를 올릴 수 있어 좋았는데 이런 보조도구를 풍부한 예시로 미리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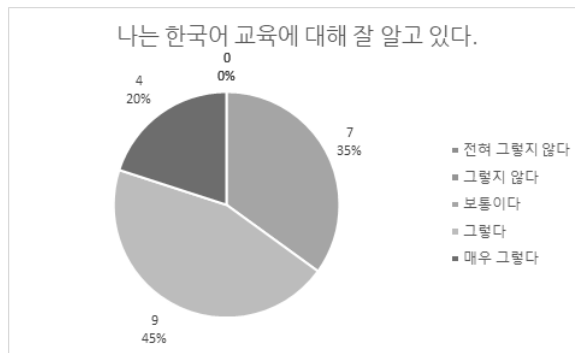
#

f)1 E2'

f&S E2'

f)1 E

"



M \$O

ž

ž

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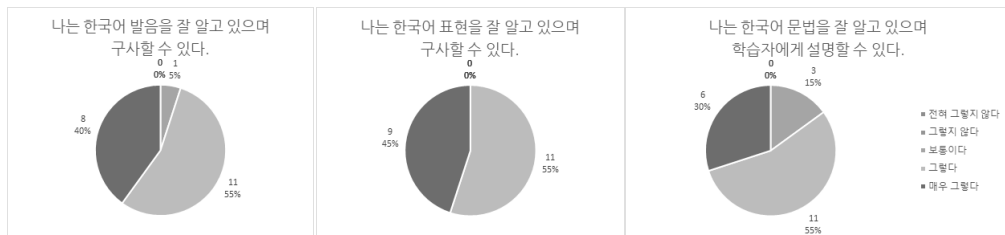
"

%

ž ž

ž ž

"



M %O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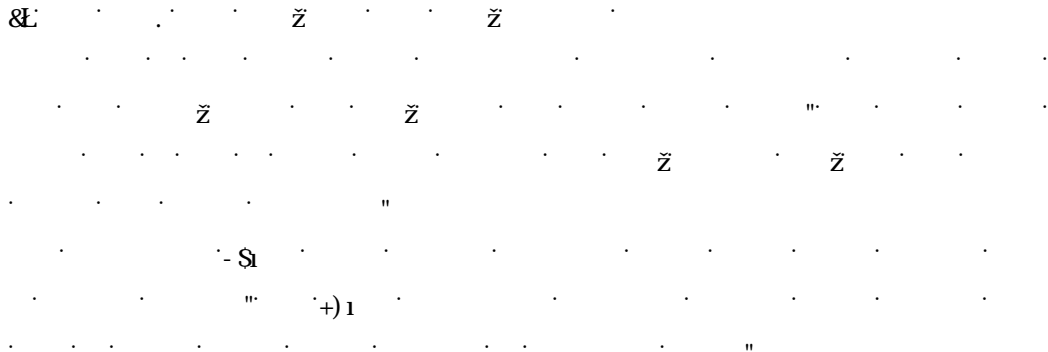
[한국어 발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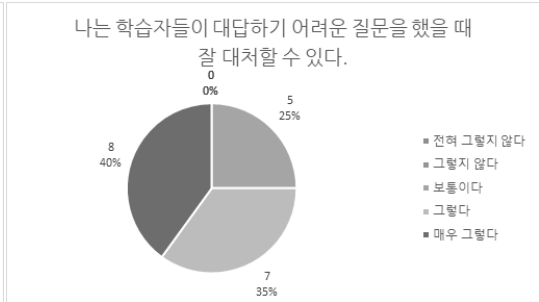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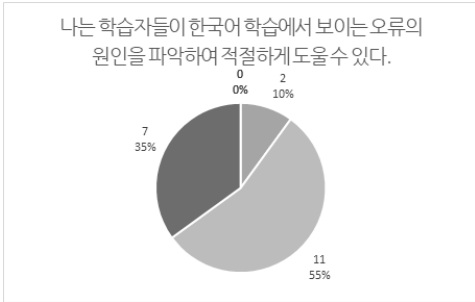
“비행기 발음의 ‘비’와 ‘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 ‘지행기’라고 읽는 학생이 있었다. 발음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입 모양을 과장하여 보여주면서 ‘비’를 발음할 때는 입술을 붙였다가 떼어서 소리 낸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한국어 문법]

“자음 카드와 모음 카드를 만들어 자음과 모음의 소리를 합쳐 읽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를 읽는다고 하면 ‘ㄷ’ 카드를 보여주며 [즈]라고 읽고, ‘ㅣ’ 카드를 보여주며 [이]라고 읽은 후, 자음과 모음 카드를 합쳐 ‘지’라는 글자를 만들며 [즈+이=지]라고 읽도록 했다.”

“받침의 유무와 받침 찾는 활동을 했더니 학생 대부분이 받침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자음이 초성에 있을 때와 받침이 되었을 때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이 많았다. 학생들에게 초성에 있을 때와 종성에 있을 때의 소리 차이를 알려주었고, 받침 있는 글자 역시 자음과 모음 카드를 이용해서 소리를 합쳐 발음하도록 했다. 그 결과, 받침 있는 글자도 쉽게 따라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초성, 중성, 종성을 합쳐 소리 내는 원리를 터득할 수 있었다. 또한, ‘ㄱ’과 ‘ㅋ’의 소리 차이를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일부로 입 모양을 과장하여 보여주며 ‘ㄱ’ 소리를 낼 때 입을 더 크게 벌린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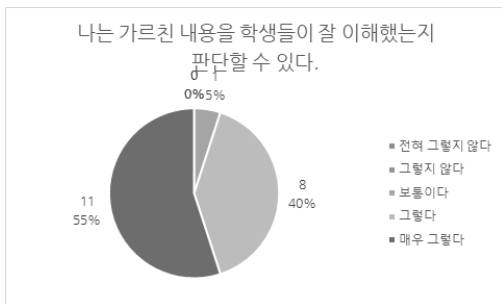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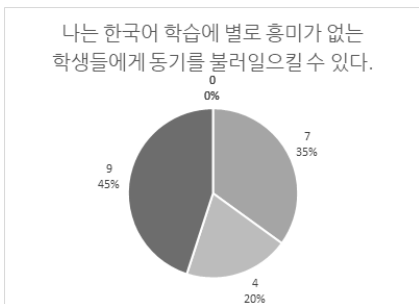


M O

“학생들이 쓰는 순서는 잘 모른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교실에 칠판이 있었으면 쓰는 순서를 알려주었을 텐데 칠판이 없어서 알려주지 못했다. 글씨를 쓴다기보다는 그리는 학생들이 많았고, ppt 폰트를 따라 하느라 정확한 글씨체가 아닌 예쁜 글씨체를 따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순회 지도를 하며 한 명씩 틀리게 쓰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주어야 했고,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따라 쓰라고 할 때는 예쁜 글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글씨를 보여줄 수 있는 글꼴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이 진동жат을 꾸밀 때 보통 한국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그렸는데, 한국과 북한의 국기와 관계에 대해 묻거나 일본과의 관계를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아이들이 제대로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버디 학생들의 번역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역사와 상황에 대해 알려주기도 하였다.”

ž



M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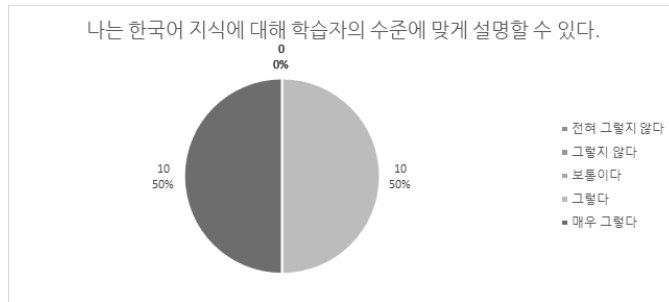
[학습자의 흥미 유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과 가장 상호작용을 하며 즐겁게 할 수 있을 과목이 과학이라는 생각이 들어 과학팀을 선택했다.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한국 문화 소개를 위해 달고나와 탕탕볼을 활용한 지도안을 작성했다.”

“게임 활동이 많아 학생들의 흥미나 참여도 측면에서 훨씬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관찰할 수 있었다. 도입 퀴즈에서도 단순한 퀴즈가 아닌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에 관련된 퀴즈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좋았다. 우즈베키스탄의 영토와 한국 영토의 크기 차이, 인구수 차이 등의 주제에 흥미로움을 느끼는 학생이 많았다.”

[학습자의 학습 상태 파악]

“내가 과연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 앞에서 계속 수업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마음을 편하게 먹고 수업해야 하는 내용들을 숙지한 후에 수업을 진행하니 말도 잘 나오고 아이들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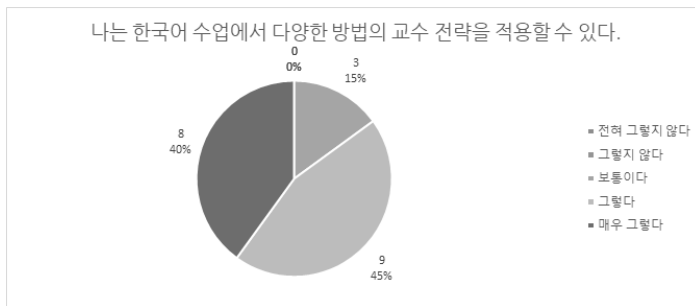


M (O

“수업의 수준 면에서는, 4~6학년 연령의 학생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알고 수업을 준비하였는데, 해당 연령보다 낮은 연령의 학생들은 보조교사가 활동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조정하였고, 높은 연령의 학생들도 있었는데 우려와 달리 활동에 잘 참여하였다.”

“31학교의 경우, 한국말을 알아듣거나 말할 수 있는 학생은 없었다. PPT와 수업 영상을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준비해 간 것이 수업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
 ”



M)O

“(숫자)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은 해당 학생들에게 약간 낮았을 수도 있지만 세 자리 숫자 백, 게임 활동 등에서 많은 흥미를 이끌어 적합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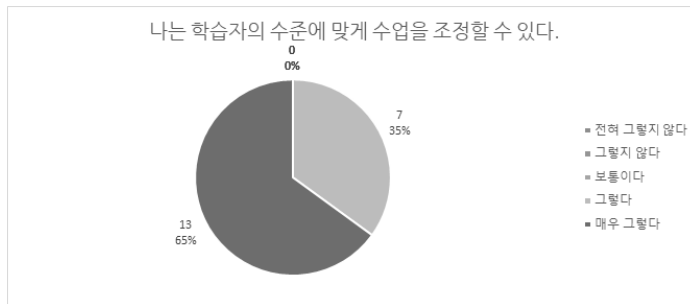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현지인 협력교사와 처음 만났을 때, 명단을 보니 158학교, 31학교 모두 러시아어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을 듣고 준비해 간 수업 PPT의 보조 언어를 우즈베크어에서 러시아어로 전부 바꿨다.”

“이번 수업은 다양한 수송수단을 한국어로 알려주고, 수송수단 중 하나인 자동차(자석 자동차)를 만들어보고 레이싱 대회를 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다양한 수송수단이 등장하는 영화 ‘탐건’을 보며 어떤 수송 수단이 나오는지 맞춰보도록 하였다. 그런데 영화 예고편이 조금 길어서, 예고편 후반부에는 몇몇 학생들이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동일한 수업을 진행한 31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영상에서 정확히 어떤 것들을 보아야 하며, 영상이 끝난 뒤에 퀴즈를 낼 것이란 것을 명확히 한 다음 시청하러 전 158학교 때보다 집중력이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전체적으로 교사의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이었던 탓에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중학년 학생들에게 인지적 부담을 주었던 것 같다. 해당 수업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로만 이루어진 학급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모둠 활동이나 게임이 추가되었으면 더 나은 수업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M * O

“

“기획해온 수준별 수업은 거의 진행하지 못했고, 모음·자음 교육부터 다 같이 진행했다. 첫 수업을 끝낸 뒤 팀원들과 얘기해봤을 때, 주어진 시간은 4차시 수업(총 4시간)이 전부인데 한글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많아 글자 체계를 이해하고 읽기·쓰기 활동을 하기까진 어렵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수업 방향을 ‘말하기’ 위주로 수정하고 아이들이 표현을 익히는데 초점을 바꿨다. (중략) 2주 차에 간 31학교 학생들은 한국어 수준이 생각보다 높았다. 한글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고, 연령대도 비슷했다. 158학교 때와 비슷하게 표현 위주로 수업하였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대화문을 수정해볼 수 있게 수업 방향을 바꿨다. 어려운 단어도 학습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단어의 수를 다시 늘렸고, 발표 대화문도 수정했다.”

“수업하면서 학년별로 분위기 차이가 크다고 느꼈다. 특히 팔찌 만들기, 피리 만들기과 같은 만들기 활동이 학년별 차이가 가장 컸다. 처음 수업을 진행한 4학년은 활발하고 말이 많은 느낌이라 집중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했고 보조 선생님들이 옆에서 밀착해 도와주는 역할도 중요했는데, 6학년이 많은 반과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 도움 없이 설명만 들어도 알아서 척척하고 집중력이 높고 과묵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4학년 수업 때는 좀 더 적은 양을 천천히 진행해야 하고, 6학년 수업 때는 좀 더 많은 양을 준비해야 아이들의 속도에 맞출 수 있었다. 집중력이 높은 만큼 학년이 낮은 학생들보다 빠르게 끝내기 때문에 게임을 번주하며 여러 번 진행했다.”

“수업 순서를 첫 주와 둘째 주 다르게 진행했다. 첫 주엔 기초과목 수업 후 한국어 수업을 했다. 주로 앉아서 수업을 듣는 한국어 수업과 만들기 수업이 많은 기초과목 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둘째 주부터 한국어 수업을 먼저하고 기초 과목 수업을 하는 것으로 변경했는데 학생들의 집중도가 올라간 것을 확인했다.”

“첫 수업과 두 번째 수업이 같은 학습 목표를 가진 수업이지만 변경한 부분이 있었다. 우선 첫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질문을 조금 더 쉽게 변형하고 비슷한 자음과 모음의 예시는 삭제하고 최대한 다양한 자음과 모음이 포함된 표현들로 예시를 바꾸었다. 한국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질문에 답하고 따라 하는 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했는데, 학생들과 제스처로 따라 하기 약속을 정하며 수업을 진행하니 학생들이 잘 따라와 주었다. 중간중간 집중을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보조교사가 다가와 읽어 보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여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한국어를 많이 따라 말해보도록 하려고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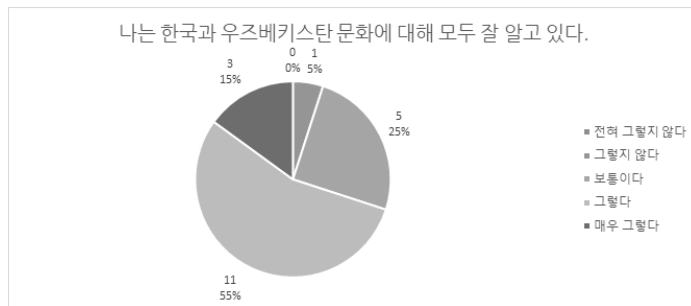
“한국어 수업을 되돌아보니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학습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습 목적의 방향을 ‘쓰기’ 중심으로 설정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에게는 흥미를 북돋울 수 있도록 ‘말하기’ 중심 수업을 구성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체능 수업 특성상 학생 간 손재주의 차이로 인해 활동을 빨리 끝낸 학생이 반별로 1~2

명 정도 있었다. 한 활동이어도 만드는 방법을 한꺼번에 알려주지 않고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줬음에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 빨리 끝낸 학생은 지루해 보이기도 했다. 미술 기초과목 수업에 활동이 이미 많다고 생각했기에 추가 활동을 준비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던 순간이었다.”

‘E . . . fi E . . .

.
“
”
“
”
“
”



M +O

.
“
”
“
”

“방과후 러시아어 교육 활동을 통해 한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던 러시아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배워본 적 없는 언어를 배우면서 현지 학생들 혹은 현지 사람들과 조금씩 소통이 되는 모습을 통해 언어의 위대함을 느꼈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학생들과는 정서적인 교감까지 이루었던 점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즈베크어를 사용하는 학교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학교가 나뉘어 있는 것도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우즈베키스탄만의 특징이었다. 단일언어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우즈베키스

탄 교육 현장만의 고민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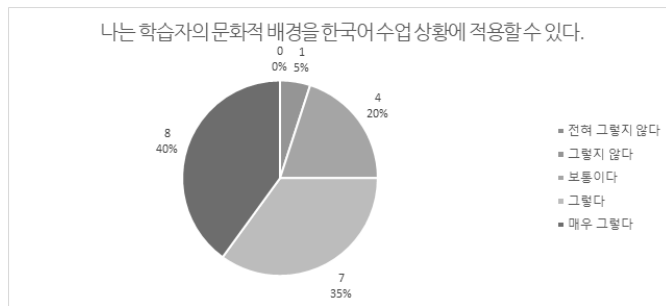
“문화 체험 활동으로는 시장 문화, 관광지의 특성, 주요 랜드마크 및 유적지 견학 등의 체험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역시 타문화권의 모습으로 그 문화권의 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고 타문화권인 우리의 입장에서 차이점을 통해 배울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얻어가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우즈베키스탄만의 학교 환경이 몇 가지 있었다. 우선, 교실에서 인사하는 방법이 달랐다. 이곳에서는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면 모두 일어서 인사하고 헤어질 때 포옹으로 인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사라진 풍경이다. 수업 시작마다 서로 정중히 인사를 주고받으니 비장한 책임감이 생기기도 했고 헤어질 때는 한 사람씩 포옹하며 인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문화적으로 존재했던 차이 중 저는 교사와 학생 관계에 한국과 다른 점이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선생님께 일어나서 인사하는 모습과 애정이 많아 포옹을 하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애정이 한국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한 교실에 섞여 활동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학급은 아직까지 한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인종의 학생이 조금 다른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학급은 조금 다르다. 그곳에서 마주한 학생들이 서로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이를 의식한다거나 다른 대우를 하는 모습은 목격한 적이 없다. 함께 더불어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언어가 달라 소통하지 못했던 답답함과 막막함, 문화의 차이에서 느껴지는 생소함 등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만나게 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미리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해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M # O

“학생들과 음식 관련 단어를 학습할 때, 현지 음식과 비교해가며 한국의 음식을 지도하고 해당 단어를 학습하도록 유도하였다. 학생들은 단순히 ‘양꼬치, 볶음밥’이라는 단어를 학습하는 것보다 현지 음식인 ‘샤슬릭, 뽕밥’ 이야기를 하며 해당 단어를 지도하니 훨씬 흥미를 보였다. 이에 교사가 학생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를 교육내용에 적용하여 지도하는 것이 학생들의 활발한 학습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업 중에 느낀 문화적 차이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수업은 타이머로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다. 수학 수업 중에서 ‘활동4. 음높이에 맞게 빨대 피리 길이 색칠하기’ 활동은 생각보다 색칠 활동이 금방 끝나지 않아, 아이들에게 시간제한을 주어 몇 분 안에 어서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자는 말을 하고 싶었다. 내가 한국 교육을 받으면서는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미술 시간에도, 어떤 과목이든 활동이 주어지면 화면에 돌아가는 타이머가 있었다. 남은 시간을 알려주어 시간에 맞춰 빨리 끝내라는 의미이다. 이런 수업 모습에 익숙했던 나는 통역을 도와주는 버디에게 우즈베키스탄에도 그런 문화가 있는지 물어보니 당황하며 그런 일은 없다며 학생들이 활동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했다. 실로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가 그리워지면서도 학생의 속도에 맞춰주는 이 나라의 모습이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조금만 서두르자는 말만 한 채 타이머는 고이 넣어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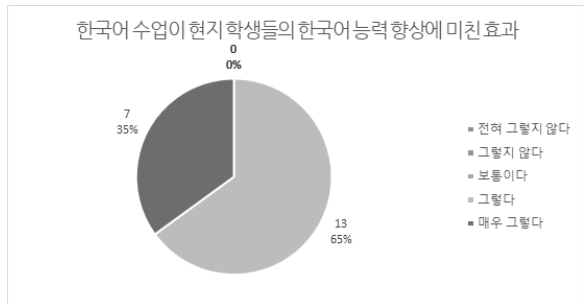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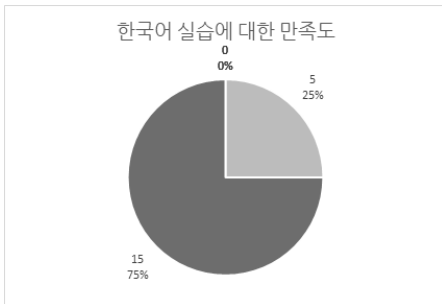
“간단한 표현들은 러시아어로 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영어와 한국어 모두 잘 통하지 않는 지역에서 현지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익히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느껴 러시아어 수업에 열의가 생기기도 했다.”

“한없이 어렵게만 들었던 러시아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타슈켄트 한국 교육원 러시아어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며 살면서 러시아어를 현지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기뻐했습니다. 배운 러시아어를 교실에서 사용하고 교실 러시아어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잠깐의 소통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 . . .

. "

% ž ž "



M ##O

. ž "

“해외 교육 실습 경험까지 포함하면 벌써 5번째 교육 실습이고 3학년이라 수업 시연은 익숙하지만 아직 매일 수업을 해본 적은 없었다. 그래서 3학년 교육 실습에서 수업을 여러

차례 해야 하는 것이 약간의 부담이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에서 4일 연속으로 1차시 수업을 해내고 나니 어떤 수업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사실 교육봉사를 간 당시 한국에서는 학교를 둘러싼 어지러운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다. 그래서 교사라는 진로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타슈켄트에 도착했었다. 그러나 교육봉사를 하는 내내 다시금 내가 학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느꼈다.”

.

.

“ ž ž

. ” ž ž ž

. ”

. ž

. ž

. ”

&L ž ž

. ž ž ž fl

ž L &

. ” ž

. ” f)1 E2’

f)1 E2’ f)1 E2’ f)1 E2’ f)1 E ”

. f)1 E2’ f)1 E2’ f)1 E2’ f)1 E

“ % %

. ”

. fl L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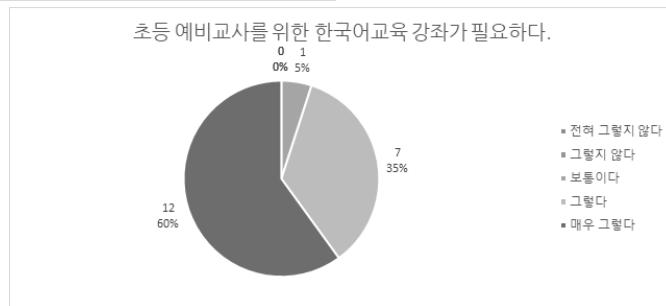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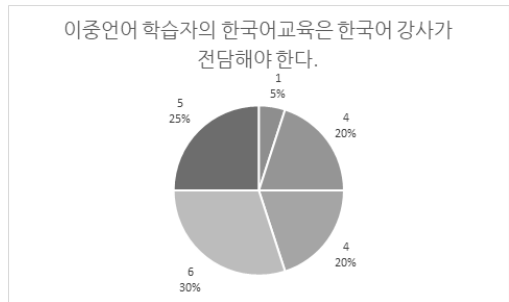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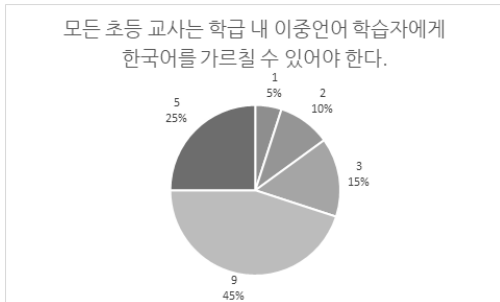
. ” 7 ”

% %

“ ”

“ ”

“ ”



M # \$ O

“ ”

“ ”

“현재 교대에서 이뤄지는 수업은 각각의 과목별로 나누어져 교육학적 지식 배우고, 교수 학습 내용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목을 통합하여 수업을 구성해 보는 ‘프로젝트’식 수업을 접할 기회가 드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교육봉사를 통해 다양한 과목을 연계하는 융합 수업을 구성해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다문화 학습자에게 ‘낯선 언어와 문화’를 어떻게 하면 쉽고, 친근하게 지도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교육봉사 경험은 예비교사로서의 성장과 자기효능감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학생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수업을 직접 해보는 경험을 통해, 교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었고, 시야도 넓힐 수 있었다. 현지 학교에서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과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상황에 맞는 수업을 계획하고 전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특히 31학교에서 학생 구성원의 특성에 맞는 학습 관심과 요구를 고려한 수업 계획을 세우고 이를 미숙하지만 실행해 보는 경험을 통해, 내 수업 방식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었다. 특히,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미래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데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단순히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려는 목적보다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국 선생님들이 이곳에 와서 좋은 경험, 잊지 못할 기억을 함께 나눴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한 학생을 혹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 또한 함께 가졌습니다. 이런 책임감 있고 막중한 생각을 갖게 된 이후로 저는 더욱 봉사에 진심으로 임하며, 저의 적성에 잘 맞는 교사라는 직업을 몸소 느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교육봉사는 다문화와 이를 교육하는 가치를 실감하게 한 경험이었다. 교실 안에서 서로 다른 인종, 언어, 문화를 가진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들의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학생들의 생활환경과 배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학생들의 가치관과 관심사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예비교사로서 이번 교육 봉사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현장에서의 경험입니다. 단순히 학생을 만나고 현직에 나가서도 경험을 바탕으로 지도한다는 이유 말고도 현재 세계화의 진행 혹은 더 넓어진 지구촌 사회에서 다문화 교육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타문화권의 학생에 관한 그 어떠한 경험도 없는 교사와 그 문화권에 직접 방문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과 교류하며 문화체험까지 진행했던 교사는 확연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7 &&&

ž

ž

7

" ž

7

ž ! !

ž

ž

ž

ž

ž

ž

ž

ž

ž

.....

..... " ž

..... " ž

..... ž ž

ž "

..... "

..... ž

..... "

..... "

..... "

..... "

..... (r * ž

* % ž "

..... "

..... "

..... %

..... "

..... ž

..... " 7

..... " ž

..... "

※ 논문 투고일: 2024. 7. 2. ※ 논문 수정일: 2024. 8. 17. ※ 게재 확정일 : 2024. 8. 30.

- 강효진(2023). 재외 한글학교 교사의 교수학적 내용지식(PCK)과 교사효능감 연구. **한국어와 문화**, 34, 122-160.
- 교육부(2017). **한국어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교육부(2023).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 (2023.09.26. 보도자료) (검색일 2024. 6. 26.)
- 김미혜, 오지혜(2023). 초등 교사의 문해력 개별화 수업을 위한 다문화 배경 학습자 대상 보조 자료 개발. **새국어교육**, 136, 79-115.
- 김미혜, 이은주, 박윤경(2015). 다문화 영상 및 도서를 활용한 다문화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이주, 새로운 뿌리를 찾아서’ 주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8, 45-80.
- 김윤옥, 윤소영, 설양환, 서찬란(2019). 국제교육 실습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다문화역량 향상을 위한 사전교육의 효과: 초등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1), 183-215.
- 김지원(2019). **한국어 교사의 교사효능감 연구: 집단적 효능감과의 비교를 통하여**.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효언(2019). **한국어 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가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윤경(2007). 다문화 접촉 경험의 교육적 의미 이해: 초등 예비교사들의 문화 다양성 관련 변화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9(3), 147-183.
- 박인심(2019). 해외 교육봉사 프로그램 참여 예비교사의 다문화교육 경험과 인식. **글로벌교육연구**, 11(4), 110-140.
- 신창원(2018). 예비영어교사의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교육 프로그램 모델. **영어영문학**, 23(3), 243-271.
- 안정민, 김재욱(2011). 한국어 교사의 교사 효능감 연구. **이중언어학**, 45, 109-132.
- 우지선(2021). 한국어교육에서의 자기효능감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 1085-1110.
- 이민경(2014). **재미 한글학교 한국어 교사의 교사효능감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선호(2023). 다문화 학생 현황. 교육통계서비스 2023년 9월 이슈통계. URL: https://blog.naver.com/kedi_cesi/223217532840 (검색일 2024. 6. 26.)
- 이영아, 윤옥경(2021). 온라인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효과에 대한 초등 예비교사들의 인식. **학교와 수업 연구**, 6(2), 175-203.
- 이정은(2018). **초입 한국어 교사의 교사 효능감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직무환경 변인을 중심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장미라, 방성원(2021). 예비 한국어 교사의 교사 효능감 변화 연구: 교육 실습 과정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1, 163-191.
- 장은미(2023). 한국어 교사의 집단적 교사효능감과 직무도전성에 관한 연구. **문화와융합**, 45(9), 919-928.
- 정미경(2010).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RR 2010-1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신애(2021). 한국어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사효능감 측정도구 개발 연구. **어문학보**,

41, 151-180.

- 정지은(2012). **한국어 교사의 교사효능감에 관한 연구: 교사의 배경 변인과 직무환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혜영(2012). 예비교원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양성기관의 해외 현장경험 프로그램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9(2), 475-499.
- 주영주, 서혁, 윤성혜(2014). 온라인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예비교사의 테크놀로지 내용교수지식(TPACK)과 교사효능감 연구. **국어교육**, 145, 379-404.
- 최문정(2018). **비영어권 한국어 교원의 교사 효능감과 역할 수행 인식 연구: 태국 대학을 중심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연옥(2021). **초등학교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학급 수업에 관한 연구: 한국어 강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은지, 류선숙, 이경(2013). 아동 대상 한글학교 한국어 교사의 교수 방법과 교사 효능감, **한국어 교육**, 24(2), 365-390.
- Ashton, P. T., Buhr, D. & Crocker, L. (1984). Teachers' sense of efficacy: A self-or norm-referred construct?. *Florid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6(1), 29-41.

『 . . . 』 . **

<Abstract>

A Study of Overseas Korean Teaching Practicum Program for Elementary Pre - service Teachers: Focusing on Teaching in Uzbekistan

Kim, Mihye¹, Oh, Jihye²

This study examines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the overseas Korean language teaching programs as part of the elementary pre - service teacher training by focusing on an educational service program conducted by the C University of Education in Tashkent, Uzbekistan, during the summer in 2023. In this case, the pre - service teachers taught the Korean language as well as other subjects to the local students in Korean at two integrated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Tashkent. The program involved 20 pre - service teachers from C University of Education and 120 local students ages 6 to 15. In addition, six local university students who majored in Korean participated in all the classes as assistant teacher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the pre - service teachers and the local students.

The educational effects of the Korean language teaching practicum program were as follows. First, the pre - service training provided the pre - service teachers with a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Korean language teaching practice and prepared them for the fieldwork, and then the pre - service teachers evaluated their skills as to whether they were able to grow in all the aspects of their teachingt knowledge, teaching practices and instruction, and attitudes toward teaching during the practicum. After the practicum, the pre - service teachers reported that their teaching efficacy had improved, and they recognized their need to develop the Korean language teaching expertise, as well as interdisciplinary teaching competence, teacher self - efficacy, and global competence.

Keywords : Elementary pre - service teachers, Korean language education, Overseas Korean teaching practicum, Teacher efficacy

1. Profess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ntikka@cje.ac.kr (Lead Author)

2. Professor, Semyung University, irene927@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